

주디스 로든 美펜실베이니아大 총장

“美대학 기업가정신 육성에 역점”

대담 / 임규준 국제부장

최근 미국 대학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인물로 많은 사람이 주디스 로든(Judith Rodin·59)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총장을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94년 미국 아이비리그(동부 8개 명문대 총칭) 대학 가운데 첫 여성 총장으로 선출된 그는 역대 남자 총장들이 해내지 못한 많은 업적을 남기며 펜실베이니아대를 명실공히 미국 최상위권 대학으로 우뚝 세운 인물이기 때문이다.

펜실베이니아대는 흔히 유펜(U-Penn)이라고 불리며, 와튼스쿨(Wharton Business School)이라는 세계 최고 경영대학원을 보유하고 있는 명문. 하버드·예일·프린스턴 같은 세계적인 아이비리그 대학 속에서 '평범한' 명문대 정도로 분류됐던 유펜을 '명문 중 명문'으로 만든 숨은 비결은 무엇일까 궁금했다.

미국 학생들도 한국처럼 이공계 기피 심각

▲유펜이 지향하는 바는 글로벌화다. 글로벌화에는 외국 우수 학생들을 끌어모으는 노력뿐만 아니라 미국 학생들이 국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포함된다.

앞으로 생명과학 분야를 꾸준히 육성할 방침이다. 대학 내 바이오 인포매틱스(생물정보학)·생명공학 분야는 컴퓨터과학과 연계해 상당한 연구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단지 이론적인 연구성과에만 그치지 않고 실생활과 연계한 실용 학문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공이 심리학으로 경영이나 관리와는 거리가 있는 것 같은 데도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한 배경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심리학은 인간 심리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경영·경제와도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경영자 리더십 연구에서도 중요하고 소비자행동론을 연구할 때도 기본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내 전공은

많은 도움이 됐다.

또 미리 전략적 계획을 세우는 데 그 동안 수행한 연구경험이 도움을 줬다.

모멘텀을 잘 활용해 다른 대학을 앞서나갔고 대학 비전과 목표 등 기본 골격을 세우고 양적·질적으로 잘 측정해 추진할 수 있었다.

—유펜이 세계적인 명성을 쌓은 배경은.

▲우선 훌륭한 단과대 학부와 대학원 덕분이다. 와튼(Wharton) 경영대학원은 얼마 전 월스트리트 저널 발표에서 1위에 올랐다. 의대·치대·법대 대학원도 세계적 수준이다.

생명공학·컴퓨터공학 등도 미국 내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

또 졸업생 수준이 높고 전세계적으로 퍼져 있다는 점이다. 문화·인종·종교가 다른 다양한 학생을 받아들인다 보니 네트워크 또한 세계적이다.

—대학 역시 여타 유기체적 집단처럼 시대 흐름에 따른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 유펜은 어떤 면에 중점을 두고 있나.

□ 펜실베이니아대학 어떤곳

美대학 랭킹 4위...와튼스쿨 유명

펜실베이니아대는 미국의 정치인이자 과학자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1756년에 세운 사립대학이다. 사회·인문과학과 자연·응용과학 분야가 균형있게 발전한 게 강점이다.

가령 하버드대는 공대가 없고 예일대는 경영대가 약하지만 유펜은 법대, 경제·경영대, 공대, 의대, 자연과학대 등 모든 분야가 골고루 우수하다.

학생들끼리는 모교를 '펜(Penn)'이라고 부를 정도로 펜실베이니아주를 대표하는 학교라는 자긍심이 대단하다.

지난해 대학랭킹은 전미 4위(US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발표). 입학허가 비율은 20.4%에 불과하다. 대학기금 규모는 34억달러에 이른다.

한국 동문수는 800명이 넘는다.



로든 총장은 로든 총장은 94년 취임 후 10년 가까운 재임기간에 학교 명성을 더욱 높인 최대 공로자다.

대학기금 규모를 11억달러에서 34억달러로 세 배 이상으로 늘렸고 연구지원기금도 2억8000만달러에서 7억달러로 확충했다.

일 못지않게 가정에 충실하려 했던 그가 예일대 심리학과 과장 시절 회의 도중 "애를 데리러 가야 하기 때문에 회의를 끝내야겠다"고 말한 일화는 유명하다.

유엔 말고도 미국에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학교가 많다. 이들 학교는 어떤 장점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개방성에 있다. 이는 단지 국적을 가리지 않는 수준이 아니다. 가령 나이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초등학생 2학년인 한 학생이 지금은 비록 그다지 뛰어나지 않더라도 성장해서 대학생이 될 즈음에는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면을 갖추는 사례가 얼마든지 있다.

미국 대학은 바로 이 같은 학생들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

한국 대학교육에 화의를 느끼는 한국인이 의외로 많다. 미국식 대학교육 우수성을 자랑한다면,

미국 대학들은 학생들에게 정보나 지식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배우는 방법을 배우라(Learning to learn)'고 강조한다. 미국 교육은 교수와 학생간, 학생과 학생간 의견교환을 더욱 중요시한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창의성(Creativity)과 야망(Ambition),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습득한다.

지식도 시대 흐름에 따라 변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미국 대학들은 학생들에게 지식을 시대에 맞게 변화시키고 이를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다.

한국에서는 우수한 학생들이 공대와 자연과학대 등을 외면한 채 법대와 의대에 진학하려고 한다.

미국도 비슷한 상황이다. 법대와 의대는 예전부터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자연과학 분야 박사과정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어 걱정이다. 그런 가운데 바이오(Bio) 관련 분야는 오히려 인기다.

한국사회에서도 여성 지위와 역할이 늘어나고 있다. 당신이 남녀공학인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첫 여성총장으로 선출됐을 때 사회적 반응은 어떠했으며 지금 그 평가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처음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여성총장이 활동할) 때가 됐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미국 전체적으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선임직전 반대 의견도 많았다고 들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여러 역경을 이겨냈고 좋은 평가를 받았다.

펜실베이니아대를 포함해 이제는 8개 아이비리그 학교 중에서 세 곳이 여성에게 총장을 맡기고 있다.

만약 내가 제대로 총장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면 여성총장 명맥이 끊어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내년 6월 총장에서 물러난다고 들었다. 재임기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꼽는다면 9·11 사태 때 학생과 교직원 수만 명이 캠퍼스에 모여 서로 얼싸안고 안전시위를 벌인 것이다.

다양한 문화와 국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숭늉시위 등을 펼치며 앞으로 쫓대로 이 같은 갈등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결의한 모습은 정말로 아름다웠다. 김동환기자 정리

“日 성장동력 여전히 충분 아시아경제 다시 이끌것”

“중국보다는 일본 경제가 아시아를 주도할 것이다. 중국은 고속 성장을 지속하지 못할 것이며 일본은 성장동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최근 고려대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세계적인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 박사는 매일경제신문이 마련한 어윤대 고려대 총장과 대담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어윤대 총장=중국을 앞으로 일본은 물론 미국까지 제치고 세계 최고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중국 경제 성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중국 뒤를 이을 수 있는 국가는 어디라고 생각하는가.

▲앨빈 토플러 박사=중국 앞으로도 계속 급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로 10억명에 이르는 중국인 중 대다수는 극빈(Poverty)한 상태다. 중국 내 정치적 갈등과 불안도 심각하다. 후진타오 국가주석도 이 같은 점을 인식하고 경제 성장을 서서히 낮추고 있으며 내부 안정을 꾀하고 있다.

일본은 되돌아 올 것이다. 90년대 초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급성장했다가 휴식기를 보인 것이다. 일본은 대나무와 같다. 성장을 지속하다 잠시 머물러 있는 상태며 다시 성장 궤도로 진입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경제적인 측면을 포함해 지리정치적·종교적·민족적인 면에서 충분히 성장동력을 갖추고 있다. 중국보다는 일본이 아시아 맹주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이 산업화를 진행할수록 인건비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현재 값싼 노동력에 기초한 중국 성장동력은 아프리카로 넘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 총장=한국은 국민소득 1만달러 골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만달러 시대로 가기 위해 필요한 점은 무엇인가.

▲토플러 박사=한국은 이미 제조업 기반에서 지식·서비스 기반 사회에 진입했다.

지식은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 따라서 교육이 중요하다.

국민 교육은 기업이나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만이 할 수 있는 분야다.

-어 총장=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정부 연구투자(R&D) 지출 중 15-25%를 대학에 배분하고 있지만 한국은 4%에 불과하다.

“한국 소득 2만弗 교육개혁 없인 실행 어려워”

▲토플러 박사=한국 대학은 산학협동에서 탈출구를 찾으면 될 것이다. 세계적인 대기업 R&D 투자를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도 협상

이다. 대학에서 좋은 연구개발을 해 내고 돈되는 성과물을 낸다면 대기업 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힘들지 않을 것이다.

-어 총장=한국은 여전히 삼성과 LG 등 일부 대기업이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이들 대기업으로 인해 한국 브랜드 이미지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지만 이들 기업이 잘못됐을 때 한국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단점이 있다.

▲토플러 박사=한국 재벌들은 족벌 경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 점을 나쁘다고만 할 수 없다. 미국 대기업들도 내부를 들여다 보면 숨겨진 족벌 경영체제가 들어있는 사례가 많다.

경영권을 분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좀더 비계급적인 위계질서와 결정 단계 단순화 등을 이뤄야 할 것이다.

남종원 편집위원·현경식기자 정리

